

# 전남도, 300억 中企펀드 만든다

가칭 'J-펀드' ... 신생 벤처·IT 관련 300여 업체 지원

전남지역의 신생 벤처기업이나 IT 관련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300억원 규모의 펀드조성이 추진된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가칭 'J-펀드'(전라산업투자조합)를 조성, 독자적인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벤처 및 IT 기업들에 펀드운용사를 통한 투자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도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기업 중 창업한 지 7년 이내인 중소기업들로, 전남도는 이들에게 먼저 자금을 지원해 주고 우선권을 배당받은 뒤 상장 후 이익금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J-펀드의 총 규모는 300억원 정도이며, 1차로 60억~70억원을 중소기업 등을 통해 공공자금으로 조달한 뒤 2차로 산업은행·기업은행·광주

은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지난 24일 산 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을 방문해 J-펀드 조성을 위한 관련 협의를 한 후 펀드참여 제안서를 검토했다.

현재 은행별로 10억~60억원 수준에서 펀드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남도는 10월말까지 펀드운용사를 공모한 뒤 관리수당 비율, 펀드참여 비율 등을 감안한 운용사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J-펀드를 지원받을 수 있는 도내 벤처·IT 기업이 300여개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펀드가 조성되면 펀드 운용사가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심사해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내 농수산 기업들을 위한 기금은 만들어져 있지만 IT나 벤처기업을 위한 펀드는 없었다"며 "펀드운용사가 임의로 투자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도 잘 정비해 도내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친환경 속옷 참 편해요

티를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백화점 4층 외코루 매장에서는 바이오 세라믹 가공을 통해 내부 체온을 올려 생리통을 완화하고, 박테리아 서식 억제기능을 갖고 있는 친환경 팬티를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 광주 '외제차' 크게 늘었다

올 568대 등록 지난해보다 53% 증가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첫 3%대 돌파



수입차업체의 지방시장 공략 및 중저가 모델 출시 등의 영향으로 올해 광주의 수입차 신규 등록건수가 처음으로 3%대를 넘어섰다.

28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광주의 수입차 등록대수는 568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371대)에 비해 53.1%(197대) 증가한 것으로, 전체 자동차 등록(1만7천766대)의 3.2%에 달한다. 올해 광주에서 등록된 새차 100대중 3대는 수입차인 셈이다.

이처럼 광주의 수입차 비중이 늘어난 것은 업계의 지방공략 강화와 중저가 모델 출시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광주는 현대와 폭스바겐 등 13개의 수입차 브랜드가 9곳의 전시장을 통해 판매함으로써 시장점유율을 꾸준히 높여나가고 있다. 상반기

광주의 총 수입차 등록건수는 쌍용차(584대)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브랜드별로는 현대가 실용성을 강조한 중저가 모델 출시 등을 통해 올 상반기 광주에서 136대가 등록됐다. 이어 ▲폭스바겐(60대) ▲포드(50대) ▲아우디(45대) ▲렉서스(43대) ▲BMW(38대) ▲크라이슬러(27대) ▲벤츠(25대) 등의 순이었다.

전남도 상반기 수입차 등록건수가 327대로 전체(2만2천902대)의 1.4%를 차지했다. 이같은 신차 등록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211대)보다 55.0%(116대) 늘어난 수준이다.

수입차 급증세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올 상반기 서울의 수입차 등록건수는 1만4천388대로 전체(14만1천388대)의 10.2%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1만2천809대)보다 12.3%나 늘어난 것으로, 이미 일부 국산차업체의 판매량을 넘어섰다. 상반기 서울의 수입차 등록은 현대차(6만9천339대)와 기아차(3만1천12대)에는 뒤졌다. 하지만 GM대우(1만1천663대)와 르노삼성(1만373대), 쌍용차(4천126대) 등을 모두 제쳤다. 지방의 경우 경남의 수입차 등록건수가 '원정 등록' 등의 영향으로 9천591대에 달했다. 이어 ▲경기(8천806대) ▲부산(1천694대) ▲인천(1천105대) 등의 순이었다.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 중기청, 中企기술혁신사업 36억 지원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춘근)은 2008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일반과제에 47개업체 36억원을 지원한다.

기술혁신개발사업 일반과제는 기술개발 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75%를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R&D)지원사업으로, 지난1997년부터 올해까지 12차례

결처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에 지원되는 일반과제는 광주·전남지역에서 174개업체가 과제를 신청해 현장경영평가, 과제평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47개업체가 최종 지원업체로 선정됐으며 8월중 협약을 체결하고 기술개발에 착수하게 된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 저농약 농산물 인증 폐지

농식품부, 유기농과 구별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전혀 쓰지 않은 유기농 농산물의 차별을 위해 '저농약' 농산물 인증제도가 폐지된다.

농식품부는 2009년 7월부터 저농약 농산물 신규 인증을 중단한 뒤 2011년 6월까지 이 제도 자

체를 없애는 방향으로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소비가 급증, 작년말 현재 전체 농산물 가운데 친환경 농산물 비중이 약 10%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저농약'까지 '친환경'으로 계속 분류돼 인증까지 받게되면 소비자와 유통업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연합뉴스

## 금호타이어 美 소비자 만족도 1위

온라인 판매업체 '솔루스 KR21' 자체 조사

금호타이어는 북미용 수출제품인 솔루스 KR21이 미국 최대 온라인 판매업체인 타이어락에서 최근 실시한 올해 상반기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사계절 일반 주행용 타이어 부문 1위에 올랐다고 28일 밝혔다.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타이어락은 소비자들과 홈페이지 방문객 등을 대

상으로 총 27개 제품에 대해 승차감과 재구매 의사, 주행안정성, 제동력 등 12개 분야를 평가하도록 했으며 금호타이어는 브리지스톤과 굿이어 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타이어락은 솔루스 KR21에 대한 자체테스트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승차감과 소음 등 측면

에서 쿠레와 세단, 미니밴 운전자들의 욕구를 모두 만족시키는 경제적인 사계절 일반 주행용 타이어"라고 평가했다고 금호타이어측은 전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올해 3월 미국 조지아주 공장을 세우고 포드와 신차용 타이어 공급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북미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결과는 그간의 꾸준한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 '고유가 시대' 에너지절약으로 이겨냅시다!!

에너지 절약  
 약75% 절감 가능 - 에너지절약인증제품을 사용하면 연간 100만 원까지 절약 가능합니다.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판매 업체를 방문하시면 에너지 절약에 노력하시게 됩니다.

에네티빙원

상주대성식품

유한회사 동하식품

광주상공회의소